



## 여섯번째 이야기

# 메타버스와 그리스도인 2

[일상을 넘어②]

[지난 이야기]

### 1. 이미 메타버스 시대

..... 2021년 6월 28일 열렸던 한국 CCC(대학생선교회) 온라인 여름수련회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CCC월드’와 ‘더포파크’가 운영되었습니다. BEE Korea 가족은 지난 2월 ICT 위원회의 섬김으로 메타버스 토요일기도모임을 경험했습니다 .....

### 2. 메타버스란?

..... Meta(beyond, 초월)와 Verse(Universe, 세상)의 합성어로서 ‘초월 세상’이란 뜻 .....

### 3. Digital Native (MZ 세대)

..... MZ 세대에 대한 이해는 곧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로 연결됩니다 .....

### 4. 메타버스와 그리스도인



“복음은 인간의 문화와 구별되지만 항상 인간의 문화적 형태 가운데서 표현되어야 하고, 복음은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도록 요청한다.” (Paul. G. Hiebert, 1932~2007)

“미래에는 Mega Church가 아니라 Meta Church만 살아남을 것이다.”(Carl. F. George,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1991)

여기서 Meta Church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제도와 조직과 의식을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Meta Church의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국민미션포럼 2021, 이재훈 목사)

우리에게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개념을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영역은 서로의 영역에 대한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각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계해야만 합니다. 즉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Abraham. Kuyper, 1837~1920)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메타버스는 인류에게 새로운 거대제국처럼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지는 시대이며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제국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BC 6세기 다니엘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모든 이방 문화의 용광로와 같았던 거대 제국 속에 녹아서 동화되지 않았고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단1:8) 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권자이심을, 신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세상 통치자들이 바뀌고 거대한 제국들이 흥망성쇠 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높이셨고 그에게 인류 역사의 전개와 마지막을 보여주셨으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 하였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 시로다”(단2:4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단4:37),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단6:26)

5. 열린 상상, 열린 질문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볼 수 있는냐는 논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성찬식은? 온라인 세례식은? 나아가서 메타버스 예배는? 메타버스 성찬식, 메타버스 세례식은? 메타버스 기도모임과 세미나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저술가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윌리몬 목사(현 듀크대 실천신학 교수)는 2022년 2월 핫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화상 강연에서 학생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학생: 메타버스 세례와 메타버스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윌리엄 윌리몬 : 가상은 가상이일 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글쓴이 장원규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부터 BEE Korea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으며, 핫볼 트리니티 신학대학원(TTGU)에 재학 중이다. 예수님을 닮은 아내와 에너지 넘치는 3남매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의사로 일하고 있다.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그림 속 His-story



그리스도를 애도함

(1305년경, 프레스코화, 이탈리아 이레나 성당)

조토(Giotto di Bondone, 1267~1337)는 1266년 피렌체 출신으로 미술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개척한 화가이다. 작품 ‘그리스도를 애도함’은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개인의 예배당에 그려진 일련의 벽화 중에 한 장면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으로 성모마리아와 두 팔을 옆으로 벌려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보인다. 이전의 성화에서는 중요한 인물(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크기는 크게, 그 밖의 인물들은 작게 표현하여 이야기 전달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면, 조토의 ‘그리스도를 애도함’에서는 사실적 묘사와 공간의 표현(인물들이 겹쳐 생기는 거리감과 공간감)이 주는 실재감으로 인하여 성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인물들의 머리 뒤 후광 표현이나 천사들 표현 등 이전 미술의 잔재가 남아 있다.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풋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위드코로나와 방역지침에 따른 일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BEE 가족을 안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